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답답했던 10월이 가고, 반전이 기대되는 11월이 온다

- KOSPI 10월 계절성 : 약세 확률 높고, 글로벌 증시대비 Underperform 반복
- 3Q 실적 불안이 4Q, 다음해 연간 실적 전망 하향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
- 반대로 11월, 12월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강세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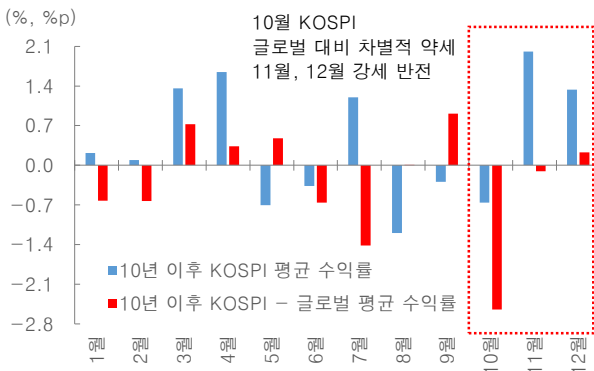
KOSPI가 10월 내내 제자리 걸음이다. 2,600선 회복 시도를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10월 KOSPI 약세는 반복되어 왔다. KOSPI 10월 평균 수익률은 2000년 이후 -1.14% (상승확률 45.83%)로 연중 최저 수익률이다. 2010년 이후로 봐도 평균 수익률 -0.66%(상승확률 50%)로 연중 세번째로 낮은 수익률이다. 글로벌 증시가 9월 약세 이후 10월, 11월, 12월 강세를 이어가는 동안 KOSPI만 유독 약한 흐름을 보인 것이다. KOSPI는 10월에만 MSCI 글로벌 증시대비 2000년 이후 2.19%p, 2010년 이후 2.55%p Underperform했다.

10월 KOSPI가 약세를 보이고, 글로벌 증시대비 유독 약한 것은 실적시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KOSPI 실적시즌에도 계절성이 있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 상회, 3분기 예상 하회, 4분기 실적 쇼크가 반복된다. 이로 인해서 3분기 실적 시즌인 10월에는 실적 우려와 실망감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3분기 실적 전망은 물론, 4분기, 다음해 실적 전망까지 하향조정된다. 올해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3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10월부터는 KOSPI 시장,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KOSPI 발목을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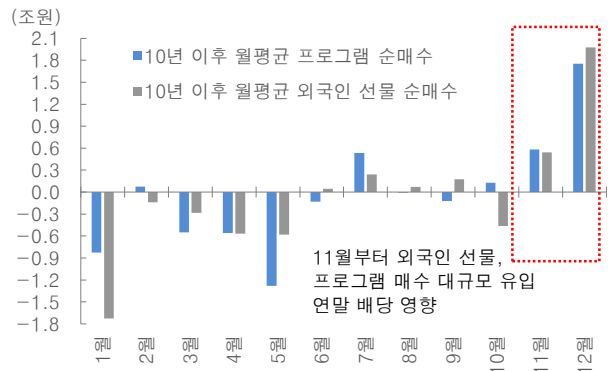
10월말 3분기 실적 시즌 정점을 통과한다. 추가적인 실적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다수 업종들이 실적대비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있다. 실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실적 결과에 따른 등락을 감안하더라도 불안 심리 완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특히, 31일에는 KOSPI 실적 불안심리 증폭의 시작이었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향후 실적 가이던스와 Q&A를 통해 선반영된 업황/실적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완화/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부분이다.

10월과 반대로 11월, 12월 KOSPI는 반전의 계절성이 반복되어 왔다. 3분기 실적 시즌 이후 연말 배당락까지 외국인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다. 연말 배당 영향으로 현선물 베이스 확대되기 때문이다. 10월말 ~ 11월초 KOSPI 등락은 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한다. 31일 PCE 둔화도 채권금리 하향안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10월 소외된 KOSPI, 11월, 12월에 반전



11월부터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대규모 매수



자료: FnGuide,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글로벌 지수는 MSCI 기준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